

사제는 또 다른 그리스도(Sacerdos Alter Christus)

구 요비 욥 신부

요즈음 종교인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소리가 점점 많아져,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가톨릭교회의 사제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국민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 뜻있는 평신도들도 가톨릭 성직자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반감과 비판이 고조되어 오지 않나 여겨진다. 교회 안에서조차 사제의 존엄과 권위가 점점 퇴색되어 가고, 무엇보다도 세속화의 물결이 신자들은 물론이고 사제들에게까지 깊이 파고드는 것은 아닐까?

불교계의 경우, 큰스님들의 즉위식이나 법회를 불교방송(TV)으로 보면, 불교도들은 늘 이구동성으로 “부디 부처님 되소서!” “꼭 성불(成佛) 하소서!”라는 간절한 축원을 한다. 이에 비하여 가톨릭교회의 큰 행사는 물론 사제의 영명 축일이나 은경축 등의 행사에서 교우들의 기원은 고작 “영육간에 건강하소서!” “부디 건강하소서!”가 전부인 듯하다. 언제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 “부디 성인 사제 되소서!”라는 표현이 사라져 버린 것일까? 아마도 웰빙문화의 홍수 속에서, 사제상도 점차 속화되어 가고 축소지향적으로 자리매김되어 가는 것은 아닐까?

“범속(凡俗)한 사제는 우리를 미혹(迷惑)한다(조르쥬 베르나노스).” 다시 6월 성심성월에 사제성화의 날을 맞이하면서, 웃음을 머미고 깊게 성찰하며 기도해야 하겠다. 좀 더 목과 어깨의 힘을 빼고서 말이다!

오늘날의 사조와 문화 안에서 “사제란 무엇 하는 존재인가?”에 대한 해답의 단초(端初)는 하느님 백성인 교회공동체의 바람과 열망 안에서 볼 수 있다. 교회현장은 이를 신앙의 감각(sensus fidei)이라고 표현한다(교회현장 No.12,31,35). 단적인 예가 2002년 서울대교구 시노두스이다. 그해 2월 어느 주일미사에 참여한 신자 32만 1059명이 선정한 시노두스 주요 의제 중 첫 번째가 성직자(16.48%)였다. 성직자에게 바라는 제안은 ① 기도하는 사제 ② 강론 잘 하는 사제 ③ 탈권위적인 사제로 요약되었다.

교구 시노두스는 교회가 찾아가야 할 사제상을, 아흔아홉 마리 양들을 광야에 놓아 둔 채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선한 목자(루카 15,3-4: 마태 18,12-14)에서 보았다. 이에 대한 사목적 성찰과 토론의 기초는 ‘기능으로서의 사제직인가? 아니면 존재(存在)로서의 사제직인가?’였다. 신학적 명제인 “행위(agere)는 존재(esse)를 따른다(토마스 아퀴나스).”가 많은 영감의 빛을 주었던 것이다. 사제직은 그 지망자의 덕성이나 능력, 재능을 보고 선택되고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느님 선물의 무상성(無常性)에서 비롯되기에 사제는 성사적인 존재이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다(요한 15,16).”

“사제들의 사제직은 그리스도교 성사들을 전제하지만 개별 성사도 수여된다. 이 성사로써 사제는 성령의 도유로 특별한 인호가 새겨지고, 대사제이신 그리스도와 동화(configuratio)되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in persona Christi) 행동할 수 있다(교회현장 10항, 사제직무와 생활 3항).”

이에 따르면 사제직의 성사성은 예수님의 존재와 행위에서 비롯되며, 그분 안에 머무를 때에만 가능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요한 20,21).”

복음 말씀에 비추어볼 때, 사제의 실존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또 다른 그리스도(Sacerdos Alter Christus)이다.

사도 요한은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너는 나를 따라라!(요한 21,22)”로 요약하여 전해준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사제적 실존이란,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며 복음을 선포하였듯이, 지금 여기에서(hic et nunc) 복음의 말씀을 살아가는 데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있지 않은가? 특별히 자기 양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 주시는 착한 목자 주님(요한 10,11)을 드러내는 투명체(transparens)가 되기 위해서, 사제의 인간성과 존재 안에 서품의 은총을 통하여 주입된 목자의 사랑을 자라나게 하고 활짝 꽃피워야 하지 않을까? <가톨릭신문, 2012-06-10>

희망을 향하여

이 동무 헬레나

1. 이 고장의 특성

저의 남편을 따라 이곳에 와서 좀 놀란 것은 이 동네와 이 근처에 아쉽게도 가톨릭 교우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개신교파인 감리교회가 일찍이 구한말부터 뿌리를 내린 곳이고, 그 교회는 '신앙구국, 교육입국'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전도와 주민계몽 사업을 동시에 한 결과로, 주민들은 비록 강원도 산골에서 살지만 타 지역보다 먼저 개명되었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곳에 처음 왔을 때는 텃세가 하도 센 곳이라서 정이 안가는 고장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니, 이곳 주민들의 태도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이곳에 들어오면서 이곳에 어떤 도움이나 아무런 혜택도 주지 못하면서 땅만 차지하고 불편과 피해만 끼친다면, 구태여 그분들이 저희들을 환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물 위의 기름방울 처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의 유익이 되는 어떤 것을 찾아서 함께 협력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쓰기 직전까지도 우리 산에서 이곳 주민들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글을 쓰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마음을 고쳐 먹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산에서 자생하는 희귀 식물만은 보호하고 보존하는데 더욱 힘써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산의 골짜기에 관목으로 우거진 곳에 아름답게 피었던 '앵초'라는 꽃의 군락지가 있었는데, 요새 가서 보니 누군가가 거의 다 파간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기에서 지내다 보니, 여기가 산나물의 전시장이자 창고처럼 여겨집니다. 저는 산나물에 대해서 별로 알지 못했었는데, 차차 알고 보니, 고사리, 고비, 밀대, 취나물, 싸리 순, 다래 순, 두릅, 뽕잎 등 여러 가지 산나물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나물들도 무분별하게 채취하면 어족 자원처럼 씨가 말라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곳 주민들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갈등과 화해

이 고장에 천주교의 단체가 들어온다는데 대해서 이곳 주민들 편에서 바라보면 반갑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지난 두 달 동안 지내오면서 이곳 주민과 이웃 토지 소유자들과 이런 저런 일로 마찰과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동안 대화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한 결과로 이제는 많은 문제가 해소되어서 자주 들려오던 '민원 제기' '법적 조치' 따위의 말들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몇 가지 사례를 말씀 드리면,

(1) 참 제자 마을로 들어오는 찾길을 막아 섰었던 할머니가 찾아오셔서 구 요나 형제님의 아내인 성 마리아 자매와 함께 반갑게 맞아들였더니, 자신이 항암 치료 중인 환자라는 것과 자기 딸이 쉬고 있는 천주교 신자이고 자신도 성당에 가고 싶으나 너무 멀어서 못 간다고 했습니다.

(2) 진입로 문제로 걸끄럽던 뽕나무 발집 부부가 두릅 재배 밭에서 일을 하기에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길을 내주는 등의 그 동안의 협조에 감사를 하고 앞으로 더 좋은 이웃으로서 지내자고 부탁했습니다. 그 이튿날 참 제자 마을 건축에 애써오신 설악 미원 본당의 임동원 안드레아 총무님과 그 분 간에 좋은 타협안이 나오게 되어서 이웃 간의 분쟁거리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차도 문제없이 드나들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3) 어느 날 아침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진입로 입구에서 내리는 어떤 부인을 만나게 되어서 먼저 인사를 했더니 뜻밖에도 자기는 바로 옆 배 밭 주인이라면서 산에 차를 만들 약초를 캐러 가는 길이라며 자기 가정 이야기도 들려주고 등글레 차 만드는 법과 뽕잎 채취 등에 대해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주어서 고맙습니다.

(4) 진입로 위쪽에 있는 고추 밭에서 노부부가 일을 하고 계시기에 찾아가서 인사 드리고 저희 곳에 오셔서 차도 드시고 쉬어가시라고 하였더니 자기 밭 둘레에 있는 뽕잎과 화초를 캐가도 된다는 후한 인심을 보여주셔서 흐뭇했습니다.

(5) 서울 집에 볼 일이 있어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옆의 분에게 인사를 했더니 남편이 경찰관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또 서울에 가야 할 일이 생겨서 버스를 탔더니 며칠 전에 만났던 그 여자 분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옆에 앉아있던 자기 남편까지 소개하여 주었습니다. 그분은 설악파출소 소장이라며 자기 소개를 하면서 구 요나 형제와 중.고등학교 동문이라고 하시기에 저희 곳에 한번 오셔달라고 초대했습니다.

(6) 그 여자 분의 소개로 우리 피정의 집에 오늘 길 나들이에 있는 향아리가 많은 장 공장의 ‘왕 언니’라는 분과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자기 집에 와달라는 초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7) 이렇듯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으련만, 난처한 경우도 겪고 있습니다.

길을 가는 저희 부부를 어떻게 알아보고 불러 세우고는 천주교에서 짓는 다기에 주민을 설득해서 전신주를 세우게 해주고 길을 내는 일에 협력을 아끼지 않았는데 오히려 집을 빌려주었다가 낭패를 당했다고 불평을 토로하였습니다.

3. 앞으로 할 일

저는 요새 이곳의 산나물들, 특히 뽕잎을 주로 하여 거기에 여러 가지 산나물들을 곁들여서 향아리에 효소를 담그고 있습니다. 효소는 고혈압, 당뇨 등 여러 질병에 효험이 있다고 여러분들께 듣고, 이분 저분한테 배워서 처음으로 해보는데, 성공한다면 앞으로 우리 모임의 수익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이런저런 기대도 됩니다.

4. 맺는 말씀

지난 두 달 동안을 뒤돌아보면, 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곳 생활에 적응하기에 무척 힘들어 하는 남편을 격려하면서 버텨왔습니다.

TV도, 신문도 없었고, 라디오도 들을 수 없었고, 전화 통화도 잘 안 되는 곳, 냉장고, 싱크대, 세탁기도 없었고, 심지어 캄캄한 밤에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간이화장실에 가기도 무서웠었고, 먼지 속의 잠자리에, 때로는 한증막처럼 무더워서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그 위에 교통이 안 좋아서 병이 났을 때 제 때에 병원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별 것 아닐 수도 있는 작은 불편함이나마 참 제자 마을을 이룩하기 위해 물심 양면으로 희생하여 오신 회원 여러분의 성의를 생각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만일 위에서 말한 그런 생활을 앞으로 다시 하라면,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는 위에 쓴 모든 문제들이 어느 정도까지 해결되었고, 온수 장치를 설치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 회원 형제 자매님들께, 그리고 특히 물심 양면으로 제게 큰 도움을 주신 구 요나 부부님께 시편 126편 5~6절의 말씀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맺습니다.

눈물로 씨 뿌리던 이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이들
곡식 단 들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2012년 5월 후원 봉헌금 현황 ***

기존회원 80명, 신입회원 5명, 합계 29,827,300원

<참 제자 마을 후원 봉헌자 명단>

2012년 5월 신입 : 김녹원 체칠리아, 손인근 바오로/박영식 데레사, 송지인 루시아, 이승원 바오로 <이상 5인>, 이해숙 마리아 <4월이전 추가>

성물 봉헌: 김중한 세례자요한/신정숙 로사리아, 손인근 바오로/박영식 데레사, 최종덕 데레사 <이상 5인>

<대단히 감사합니다>

* 피정의 집(60명) 건립에 아직도 3억원 정도의 대출금이 남아 있고, 추가적인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많은 기도와 봉헌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위 분들께 신규회원 가입 및 봉헌을 적극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요비(옴) 사제 서품 30주년 글 모음 '복음 우리의 길'을 17,000원(30%할인)에 공급합니다.

* 완공을 눈 앞에 두고 있는 '모곡 피정의 집'에 필요한, 성모상(야외), 스테인드글래스(경당) 등에 대한 성물 봉헌자를 찾고 있습니다.

* 2011년 10월부터 구좌 회원제로 전환하고(1구좌당 월 10,000원), 참 제자 마을 2단계 사업인 '피정의 집' 건립을 위한 후원 봉헌금을, 일시금 납부, 약정 납부, 구좌 납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후원 구좌 번호

1002-641-017945 우리은행 양업문화 참제자마을
031601-04-164956 국민은행 양업문화참제자마을
01168-12-001493 신용협동조합 양업문화교육원

<연락처> 전화; 02-853-1104-5 팩스; 02-853-1105
핸드폰; 011-9917-4523
E-Mail : kujob@catholic.ac.kr

<양업문화교육원 홈페이지>

http://club.catholic.or.kr/yanguptown

* 참 제자 마을의 목표

강원도 홍천 '피정의 집'을 중심으로, 복음 말씀에 따라, 가난하고 고통 받는 이웃들과 함께, 가톨릭 신앙의 깊은 영성을, 슈브리에 신부님의 길을 본받아 살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는, 건강한 공동체

* 참 제자 마을의 영성 :

삼위일체 신비와 복음적 가난의 실천

- 자기 비움
- 천교의 정신
- 가난의 정신
- 봉사의 정신
- 공동체적 영성의 삶

* 사업 방향 및 목적

- **피정의 집** ; 머무르고, 쉬고, 기도하고, 배우며, 천교를 나누는 공동체적 나눔터.
 - **쉼터 - 나눔의 집** ;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을 위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실천의 터
 - **돌봄과 나눔의 영성적 녹지 공간** ; 하느님이 주신 자연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배움의 터이자, 순수 자연 속의 묵상의 터.
- 참제자 마을 생산 농산물의 나눔과 축제의 터

* 슈브리에 신부님의 시성을 위한 '구일 기도' 요청
모임 때 나누어 드리고 있는 '복자 앙트완느 슈브리에 신부와 함께 바치는 구일 기도'를 참제자 형제 자매님들께서 함께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 매일 12시 정오

참 제자 회원 모두가 삼종기도, 참 제자 마을 조성을 위한 기도,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 5월부터 매 주일마다, 모곡 피정의 집 경당에서 11시 주일미사가 봉헌됩니다.

5월 13일(14명), 20일(10명), 27일(22명)

6월 03일(11명), 10일(17명), 17일(17명)

미사 전 후 시간에, 피정의 집 주변 정비와 참제자 모임 텃밭 가꾸기 봉사 작업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 청평버스터미널에서 모곡행 버스 시각이, 하절기를 맞아, 6:40, 8:10, 13:40, 17:50 으로 바뀌었습니다.

* 6월 2일 김정훈 부제 추모미사 봉헌

성북동 프라도의 집에서, 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피정의 집'에 설치할 야외 '성모상' 위치 잠정 결정

6월 10일 9시부터 11시경까지, 성모상과 14처 성물 제작을 맡아 주시는 손미경 세실리아 자매님과 함께 모곡 현장에서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 '참제자 마을' 공동회장단 선임

5월 27일 모곡 경당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이후 '참제자 마을' 공동체와 함께 하실 공동회장단으로, 문수정 가타리나(대표), 백영국 세례자요한(대내), 박광용 아우구스티노(대외) 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모곡 '피정의 집' 건축-준공 관련 업무는 안상용 루카 님이 총괄하시게 되었습니다.